



## 중국, 해외투자 가속화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2011년 중국의 해외투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 기업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중국 국부펀드 협력사인 사모펀드 A Capital에 따르면 중국의 2012년 1분기 해외투자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<sup>1)</sup>
    - 천연자원, 에너지 부문 투자 비중은 2011년 1분기(24%)에 비해 크게 증가한 92%로 집계됨.
  - 또한, 2012년 1분기 중 중국 국영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.
    - 전년 같은 기간(53%) 보다 98% 수준으로 증가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함.
  
- 중국의 최우선 투자 지역은 남미로 2012년 1분기 현재 중국의 해외 M&A 중 43%를 차지함.
  - 1분기 중 가장 큰 규모의 M&A는 중국 Sinopec이 포르투갈 원유 회사 Galp Energia의 브라질 자회사 지분 30%(51억 6,000만 달러) 인수임.
  
- 유럽에 대한 중국의 해외 M&A 비중은 16%로 남미 다음으로 선호된 지역임.
  - 2012년 1분기 유럽지역 투자는 전년동기(37%)에 비해 감소하였으나,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 선호가 감소된 것을 의미 하지 않음.
    - 중국의 자원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가 축소된 것처럼 보임.
  - 비자원 부문의 경우 1분기 현재 중국의 해외 M&A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83%를 기록함.
    - 유럽이 중국 투자자의 주요 전략적 투자처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평가됨.
    - 1분기 중 중국의 對유럽 최대 투자는 중국 투자공사(CIC)가 영국의 유틸리티 업체인 Thames Water 지분(7억 7,900만 달러 규모)을 인수한 것임.

1) 미개발지 투자나 플랜트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인수합병(M&A)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.

● A Capital은 유럽 브랜드 투자로 중국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브랜드 가치도 고양된 것으로 분석함.

- 2010년 중국의 Fosun Group은 프랑스 리조트 운영업체인 Club Mediterranee의 지분 10%를 인수하고 중국에서 Club Med 리조트를 오픈하기로 함.

■ 2012년 1/4분기 중국의 對미국 투자(800만 달러)는 정치적 요인으로 전년 같은 기간(9억 7,500만 달러)에 비해 급감함.

● 전문가들은 정치적 민감성 등으로 중국의 미국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중국의 미국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.

(Wall Street Journal, 6/6)